

# Dave Mathewson 박사, 요한계시록, 강의 10

## 요한계시록 5장과 6장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이것이 10회기, 요한계시록 5장과 6장, 어린 양과 두루마리의 인의 서론입니다.

어린 양과 두루마리의 인에 대한 소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곧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5장의 요점은 예수님이 합당하시며, 두루마리를 가지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이 도살된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분은 모든 인류 중에서 사람들을 사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죽음, 유월절 양으로서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적인 죽음, 아마도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 어린 양으로서 예수께서 이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것에 근거합니다. 그 내용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5장의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7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응답입니다. 8절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이 행위에 대한 하늘의 응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장부터 5장의 나머지 부분까지가 천국 전체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4장로와 네 생물에 대해 소개받았지만, 하늘 보좌실에 거주하는 다른 천사들에 대해서도 소개할 것입니다. 5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7절에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는 사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분명히 설명할 것입니다. 번역에 따라 8절부터 5장 끝 부분까지 받거나 받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주목하세요. 이 부분의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찬송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4장에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부른 몇 곡의 찬송을 소개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린 양의 7절에서 이 사건을 기념하는 천사들의 노래와 찬송이 점점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가져가는 중. 그리고 내 생각에 이 모든 찬송은 7절을 해석하거나 방금 일어난 일의 1절부터 7절까지의 장면을 해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특히 5장 뒤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중요한 텍스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4장과 5장이 함께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암시하는 것 중 하나는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분, 24장로와 네 생물, 일부 유사한 성격과 특징 등 비슷한 이미지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모두 뒤에는 동일한 구약성경 본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 1장과 2장, 그리고 이사야 6장입니다. 선지자들이 보좌실에서 본 두 환상은 이제 요한의 환상에 대한 모델을 제공합니다. 5장에 특히 등장하는 또 다른 중요한 본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본 본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일곱 교회에 연설하라는 임무를 맡기기 위해 첫 번째 환상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니엘 7장의 성취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인자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 특히 13절과 14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내 환상 중에 내가 밤에 보니 거기 있더라. 내 앞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나니

그는 옛적부터 늘 계신 이에게 다가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장에서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는 그분께 권세와 영광과 주권을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였습니다.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다니엘 7장은 보좌 앞으로 나아오는 인자, 옛적부터 항상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제 권세와 능력을 받고 이제 그에게서 나라를 받아 왕의 통치에 들어가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은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서 두루마리를 받고 능력과 권세를 받아 통치하게 되면서 성취됩니다. 사실, 우리는 찬송가가 바로 그것을 축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는 권세와 권세와 힘과 지혜와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 그 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5장의 이 행위는 이제 예수께서 왕권을 받으시는 다니엘 7장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5장을 읽을 때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좌로 인도되어 보좌에 앉으시는 것처럼 즉위 장면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David Aune이 자신의 논평에서 수사 장면이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즉, 이제 예수께서는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이것이 3번 질문의 전부입니다.

과연 누가 이 두루마리를 받아 펴기에 합당하겠습니까?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누가 그렇게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실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고 이제 두루마리의 내용을 제정할 권세와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른 본문에서 했던 것처럼 이 부분의 더 중요한 특징 중 일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7 이제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받아 펴는 권세를 받으셨으니 우선, 5장에서 성전 이미지가 작용하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주목하세요. 우리는 이미 4장과 5장에서 이것이 단지 천국의 그림이 아니라 천국이 천국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몇 가지 특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성전을 상상했는데, 그 중 하나가 금송아지의 임재입니다.

8절을 주목하십시오. 그가 그것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리니라. 저마다 거문고를 들고 향이 가득 담긴 금송아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금송아지는 아마도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의 상 위에 있던 황소를 암시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금황소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열두 번 이상 등장하며, 여기에서도 이 황소가 하늘 성전으로 보여야 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합니다.

아마도 천사들은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이 금송아지를 들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묘사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자가 확인한 향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의 성도들의 기도와 같습니다. 이제

이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특히 6장에서 다섯 번째 인인 향과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향이 성도들의 기도로 확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은 이에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시고, 의로움을 가져다 주시기 위한 성도들의 기도,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6장부터 20장의 나머지 부분을 향이 가득한 황소와 동일시되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고 황금 황소가 자라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때때로 어떻게 기능하는지 볼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점은 8절부터 5장 끝까지 하늘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7절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은 점점 더 넓어지는 동심원을 그리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은 보좌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고 하늘의 반응이 점점 더 넓어지는 동심원을 그리며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이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8절에 보면, 9절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24장로와 네 생물입니다. 당신은 두루마리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 7절과 바로 연결하고 그 인봉을 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 이유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음이니이다. 저희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4장에서 소개된 24장로와 네 생물을 시작으로 이제 그들은 7절에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일을 기념하여 보좌 주위에서 먼저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

그들은 여기서 그 이유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위한 구원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1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들으니 천천도 만만이요 많은 천사의 음성이다.” 그들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층, 곧 천천천천, 만만의 천사들이 보좌를 둘러싸며 노래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느니라,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이니라. 그러나 마지막으로 13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의 소리를 들으니”. 그러므로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창조와 노래를 포괄하는 원이 생겼습니다. 13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늘은 보좌를 중심으로 점점 더 넓어지는 동심원 안에서 예배가 터지며, 결국 만물, 만물이 그 중심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모든 것은 중심에서 흘러나온다. 4장부터 22장까지, 실제로는 6장부터 22장까지, 5장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은 모두 중심, 즉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결국 모든 피조물이 예배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21장과 22장의 마지막 장면에 대한 기대일 것입니다. 그 장면에서는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셋째, 세 번째로 말해야 할 것은 이 장의 요점입니다. 특히 24장로와 네 생물이 부르는 첫 번째 찬송과 5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환상에서 그렇습니다.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합당합니다. 우리가 이미 본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저자가 극복 또는 정복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요한이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이가 있다는 말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기 때문에 이기고 그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요한이 이 사람을 보려고 돌아섰을 때 그가 본 것은 사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어린 양은 5절과 6절에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다시 매우 군사적 이미지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며 권능과 힘을 암시합니다.

사실, 일곱 뿔 달린 양의 이미지는 예를 들어 유대인 묵시문학의 다른 곳에서도 등장합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에는 발견되지 않는 초기 묵시록 중 하나이지만 에녹서라고 불리는 영향력 있는 묵시록에서 매우 흔한 본문입니다.

다양한 사람과 국가를 상징하기 위해 동물을 사용하는 그의 비전 중 하나에서 그는 뿔이 자라며 힘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양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녹서 90장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눈처럼 흰 양에게서 어린 양들이 나더니 그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어 양을 향하여 부르짖더라. 그러나 양들은 그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도 어린 양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히 귀가 멀고 눈이 심히 어두워졌더라. 또 내가 환상에서 까마귀들이 어린 양들 위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그 어린 양들 중 하나를 붙잡고 그 양들을 쳐부수어 먹었습니다. 나는 그 양들이 뿔이 나기까지 계속 보았으나 까마귀들이 그 뿔을 으스러뜨렸습니다.

그 후에 내가 계속 보니, 양 중 하나에게 큰 뿔 하나가 나오더니 그 양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환상이 있었고 그들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그가 양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니, 모든 숫양이 그를 보고 그에게로 달려가니라.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요점은 힘과 힘을 암시하는 뿔이 달린 양의 이미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다시 한 번, 적어도 처음에는 어린양이 정복하러 오며 뿔난 어린양이 정복하러 오지만 자신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물건을 사는 자,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로서 그렇게 한다고 재해석합니다. 그는 죽임을 당하셨고 그의 피로 인류를 사시고 구속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섹션에서 우리는 양이 독특한 특징, 독특한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이미 이에 대한 힌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요한이 이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땅 아래와 하늘에 두루 찾아다녔으나 합당한 자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어린 양은 합당한 것으로 판명되어 보좌에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제기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건 무슨 양이에요? 이는 땅 위에 있는 사람이나 땅 아래 있는 사람, 심지어 하늘 위에 있는 사람과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의 나머지 부분인 이 찬송가 부분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진술 중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4장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과 동일한 경배를 받으신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예를 들어, 특히 12절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이로다.

4장 11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을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동일한 표현, 능력, 영광, 힘, 존귀를 받으시지만, 4장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과 똑같은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5장에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엄격한 유일신 숭배의 맥락에서 이러한 찬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4장으로 돌아가면 4장의 장면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사 만물을 다스리시며 온 하늘의 경배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전혀 이상하거나 새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유대인 독자에게도 이상하거나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5장에서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그러한 유일신론적 맥락에서, 4장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만이 경배받을 만한 유일한 분이시며, 피조물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을 경배하는 것은 순전한 우상숭배입니다. 이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4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과 동일한 경배를 동일한 사람들에 의해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똑같은 보좌에 앉히심으로써 그렇게 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1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와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노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찬송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양을 한 호흡으로 예배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 매우 흥미로운 사건을 두 번 본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19장에 나오며, 22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책 마지막 부분에 있는 22장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는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그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요한에게 말씀을 전하며 8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듣고 본 자가 요한이니라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니라

그러나 천사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사람과 함께 된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고 그런 일이 두 번 일어납니다.

즉, 이 천사 같은 존재도 예배를 거부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며 다른 어떤 존재도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모시고 하나님과 같은 예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곳에서 저자가 묘사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에 보낸 편지 중 하나에서 성도들 자신이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매우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것의 창조주로서, 숭배받을 가치가 있는 자로 숭배받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만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엄격한 유일신론적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즉, 저자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 자체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숭배받을 가치가 있는 신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엄격한 유일신론을 위반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숭배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 한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가 신격의 제2위이시며 하나님의 본질과 존재를 공유하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후기 니케아 신조와 칼케도니아 기독교론을 낳은 종류의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 즉 어떤 의미에서도 엄격한 유일신론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과 동일한 예배에서 이미 그 개념을 발견합니다.

9절에서 또 강조할 점은 생물들과 24장로들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부르는 것이 흥미롭다는 점입니다. 새롭다는 말은 21장과 2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것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미 새 창조를 시작하신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제사장 왕국의 설립을 통한 새 창조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왕과 제사장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며, 영원무궁토록 통치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인류를 사서 그분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새 창조가 시작되었고 이 본문은 그것을 기념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완성된 새 창조를 예상하고 있는데, 21절 1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이미 본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제공하시는 구원입니다. 보좌와 이 장면에서 나오는 그의 왕국의 설립은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방금 다시 읽은 구절이 바로 이것이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가지기에 합당하신 것은 그가 죽임을 당하사 그의 피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음이라. 우리는 요한계시록 서신 서문의 1장, 5장, 6장에서 이것을 보았고, 이제 여기서 반복됩니다. 즉, 우리가 말한 도살된 어린양은 아마도 이사야서 53장과 7절, 고난 받는 종의 구절에 나오는 도살된 어린 양을 연상할 뿐만 아니라 유월절 어린양도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류를 대속하시고, 출애굽 당시 자기 백성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런 다음 그들을 속박에서 해방시켜 제사장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시고 창조하셔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제사장 왕국에 대한 이 언어는 출애굽기 19장, 6장과의 연관성을 나타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들을 그의 제사장 왕국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1장과 2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어 그를 경배해야 했고, 이제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9장, 6장에서 같은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즉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방언에서 나온 보편적인 초문화 백성은 이제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이제 10절 끝 부분에 있는 이 메모는 이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그들이 땅에서 통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흥미롭게도 여러분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신약성경은 여러 사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성서 본문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쓴 원본은 없지만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 사본들은 약간씩 다르며, 학자들은 본문 비평이라는 과정을 통해 요한이 썼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높은 수준의 확신을 가지고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차이점은 사소하지만 일부 사본에는 실제로 현재 시제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이 미래의 통치에 대한 기대인가, 아니면 현재의 통치에 대한 기대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나는 그것이 아마도 둘 다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통치를 대표하는 제사장 왕국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특히 요한계시록 20장과 4절과 6절과 같은 본문에서 그것의 미래 성취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나는 천년왕국에 관한 그 구절에서, 지금 고난을 받고 참수당한 사람들은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며 이 말씀이 성취되느니라. 우리는 또한 새 창조에서 22장 5절이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로 끝나는 사실을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즉 10절의 마지막 줄은 그들이 땅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아마도 20장과 21장, 22장에 대한 기대일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영원무궁토록 새로운 창조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창조하셨고, 사람들을 사셨으며, 제사장 나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통치한다고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사장 나라를 창조하고 그들이 땅에서 다스릴 것이라고 암시하는 이 구절은 아마도 다니엘 7장을 반영할 것입니다. 그 때 다니엘은 인자가 옛적부터 온 자에게 와서 나라를 받으러 오는 것에 대한 환상을 해석합니다.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모든 백성이 그 앞에 절하느니라.

흥미롭게도 22절 22절에서 그는 2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성도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더라 가장 높으시고, 그들이 왕국을 차지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도 왕국을 소유한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권위를 갖고 다니엘 7장에 있는 인자의 예언의 성취와 왕국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도 다니엘 7장의 성취에서 통치할 것임을 봅니다. 우리가 말한 땅은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과 천년왕국 본문에서 성취되며, 그 이상으로 21장과 22장의 새 창조에서도 성취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이 언어가 여전히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이 언어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나온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또한 주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일반적으로 이방인 사람들을 지칭하는 유사한 단어 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 3장과 4절, 7절에서 시작하여 그런 종류의 표현을 다니엘서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장에서 그는 4장을 되돌려 읽자마자 7장, 그 다음에는 7장을 읽었다고 말합니다. 전령이 큰 소리로 선포하니 이것이 너희에게 명령된 일이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이 형상에게 절할 것을 요구하는 느부갓네살의 맥락에 있습니다. 오 백성들과 나라들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명령을 받은 일이다.

소리가 들리자마자 절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큰 낫과 수금과 수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엎드리어 이미지를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요한이 다니엘 7장을 인용하고 있는 7장 14절에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 7장이 말하기를, 자기가 권세를 받았으니 곧 인자가 옛적부터 오는 자로서 영원한 영을 받으리라 함이라.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주권이 주어지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더라.

흥미롭게도 여기에는 세 가지 범주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헬라어 번역인 칠십인역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처럼 실제로 네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는 네 가지, 즉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번역본인 칠십인역, 다니엘서 70인역 역시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흥미로운 점은 요한이 한 일이며, 이는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 걸쳐 두 가지 의미를 지닌 중요한 주제를 소개합니다. 우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약속을 구속하고 성취하실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 나라를 통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지파로 구성된 문화 간 보편적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하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는 언어와 사람과 언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우리는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은 이제 국가적 이스라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적인 초문화적 백성, 즉 사람들을 통해 성취됩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방언에서 나오니라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출애굽기 19장 6절의 현재가 모든 언어와 족속과 방언의 백성에 의해 성취된다는 사실을 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계시록의 일부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가 하늘에서 온전히 인정되고 하늘에서 실현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지구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탄의 왕국과 이 세상, 그리고 로마 제국과 같은 인간 정사와 권세의 왕국을 빼앗거나 옮겨가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사탄의 통치와 로마와 같은 악한 제국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도 구출하시고 이제 그들을 그분의 왕국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중요한 주제인 지금의 모든 나라, 즉 사탄의 속박과 로마와 인간 왕국의 압제적인 정권 아래 있는 모든 나라가 이제 그로부터 구출되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을 사셨고 이제 그들을 그분의 왕국과 제사장으로 삼아 그분의 통치를 대표하고 이 땅에서 그분의 임재를 대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서, 곧 짐승에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로 왕국이 옮겨지는 것은 또한 그 백성, 즉 모든 나라의 백성이 사탄과 짐승의 통치 아래로 옮겨져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어린양을 위하여.

또한 이 문구의 어떤 형태, 즉 국가, 백성, 부족, 언어 등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일곱 번 나온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우연이 아닌 의도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한은 아마도 이 문구를 의도적으로 일곱 번 반복했을 것입니다.

5장 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7장 9절, 10장 11절, 11장 9절, 13장 7절에서 짐승의 통치와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4장 6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장과 15절입니다. 따라서 그 일곱 번은 여기 5장과 9절에서 찾을 수 있는 이 네 가지 표현의 일부 버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족속과 언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나라. 마지막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흥미롭게도 5장, 11장, 12장, 특히 12절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함께 그분은 모든 피조물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시며, 두루마리를 가져가서 펴서 그 내용을 움직이게 하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분께, 즉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주어진 칭호를 주목하십시오. 안타깝지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이 7배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언급된 일곱 가지 요소는 찬양과 존귀, 영광과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는 13절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곱 가지 요소가 주어졌는데, 이는 아마도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 그리고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찬양의 충만함이나 완전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흥미롭습니다. 구약성서에서 이에 대한 수많은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역대상 29장과 11절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하매

여호와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과 위엄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비슷한 다른 찬양도 찾을 수 있지만 흥미롭게도 제 생각에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구약성경에 대한 암시, 하나님께 드린 찬양, 이제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찬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곱 배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완벽함과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 7을 사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 흥미롭게도 13절에서 부른 다음 찬송과 대조해 보면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와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께 노래하는 찬송이 나옵니다. 어린양이시라 이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이 칭찬이 4배에 불과하다는 점이 흥미롭다.

언급된 항목은 네 가지뿐이지만 이전에 어린양에게 말한 내용과 중복됩니다. 그런데 4개만 언급된 것이 흥미롭다. 나는 이것이 아마도 의도적인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4는 지구의 네 모퉁이 등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4가 모든 창조를 상징한다는 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13절의 시작 부분에서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할 것입니다. 그러니 숫자 4가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든 창조물, 즉 모든 창조물에 해당하는 4가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아마도 21장과 22장의 새 창조에 명백하고 존재하는 보편적인 예배와 찬양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적인 창조자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그의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온 하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주권의 상징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으며, 모든 창조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물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4장과 5장 사이의 가정은 죄가 그의 창조 질서를 오염시키고 손상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죄를 가정하고 악을 가정하고, 사탄이 이제 세상의 통치자라고 가정하고, 짐승이 이제 1세기에 로마 제국의 형태로 악하고 사악하고 억압적인 정권이 통치하는 것들을 통제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땅은 사탄이 그 배후의 주된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5장은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물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이제 주로 자신의 백성에게 초점을 맞춘 자신의 창조물을 되찾고 구원하기 위해 행동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1장에서 보게 될 것이며 결국 물리적인 지구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을 버리지 않으셨고, 이긴 아들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을 되찾고, 바로잡고, 사탄의 억압적인 세력에서 구출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악과 짐승을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완성되는 새로운 창조 행위를 통해 의도된 목표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5장을 보면 이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펴기에 합당한 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펴기에 합당한 자를 찾으시는 장면이 설정되었습니다. 심판과 구원, 그리고 그의 왕국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6장은 5장의 연속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6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5장의 두루마리를 봉한 인이 이제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곱 인이 두루마리에서 떼어지면 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6장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제 장면이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4장과 5장의 장면은 하늘에 속한 장면이었습니다. 요한은 4장 시작 부분에서 보았듯이 하늘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주권을 엿볼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속과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며, 그분의 창조물과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요한은 환상에서 그 점을 보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제 장면은 그가 하늘에서 본 이 두루마리가 그렇게하기에 합당한 어린 양에 의해 개봉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땅으로 전환됩니다.

두루마리가 풀리기 시작하고, 우리는 심판과 구원, 특히 심판이 이제 어떻게 보좌와 인에서 나올 것인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인을 쥐고 계시고 죽음의 결과로 인을 떼기 시작하실 때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그분의 권세와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면 5장에 있는 두루마리의 일곱 인을 떼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6장의 독특한 점은 무엇입니까? 독특한 점은 6장에 있으며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6장에서는 봉인 중 6개만

풀립니다. 일곱째 인은 실제로 8장까지 열리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기능을 수행하는 7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논평에서는 그것이 막간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아마도 그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일 것입니다.

인장과 무관한 여담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도 틀린 말이다. 7장을 살펴보고 거기에 도달하면 그 기능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6장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되는 점은 인봉 중 여섯 개만 실제로 열리거나 풀리고, 일곱 번째 봉인은 8장이 시작될 때까지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7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6장에 나오는 인의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은 마지막 인 12절부터 17절까지의 6번 인이 우리를 역사의 종말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부르는 최후의 심판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서문에서 이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책은 일시적으로 여기서 멈출 수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만족스럽지 못한 결말이 될 것입니다. 6장은 심판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세상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끄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직 가야 할 장이 몇 개 더 남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18장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했듯이 계시록은 일시적으로 순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역사의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역사의 최종 완성과 계획을 배경으로 하여 요한의 시대가 역사의 마무리로 정점에 이르는 것에 대해 서로 다른 이미지를 주고 서로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궁극적인 심판과 구원을 위해.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이미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해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처음 네 개의 인장이 함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통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네 인장만이 말로 식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 처음 네 인은 네 마리 모두 네 마리 말로 상징되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논리적으로 그들은 함께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논리적으로 처음 네 개의 인은 서로 얽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들은 서로서로 연관되거나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6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읽기 전에, 다시 한 번 6장을 읽고 싶지만, 8장과 9장에 이르면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수도 있다는 질문을 간단히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6장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책의 눈에 띄는 특징은 적어도 4장부터 22장까지의 중앙에서 이 부분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일곱 인의 형태로 일곱 재앙이 세 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 나팔 일곱 개, 대접 일곱 개.

여기 6장과 8장에 나오는 일곱 인,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일곱 나팔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곱 나팔이 불고, 더 많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16장에서는 일곱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형태로 된 이 삼중 일련의 일곱은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 일련의 일곱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리고 그들은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것들은 모두 일곱 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모두 재앙이며, 땅에 일어나 땅과 인류를 치는 심판 재앙입니다. 특히 8장, 9장, 16장에 이르면 이 두 부분에서 일어나는 심판과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이 무엇이며,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한 가지 가능성은 이 7개의 세 세트를 보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6장부터 16장까지의 인과 나팔과 대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한 가지 방법은 이러한 일련의 심판이 연대순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 그 일이 끝나면 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팔이 울리고, 나팔이 다 끝나면 대접이 일어난다. 따라서 7명으로 구성된 세 그룹 사이에는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텔레스코픽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일곱째 인은 8장까지 풀리지 않지만 8장과 9장은 나팔을 담고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일곱째 인에 실제로 나팔이 들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나팔은 11장 후반부까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곱째 나팔에는 실제로 일곱 대접이 포함되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망원경과 같으며, 각 망원경을 당기면 나머지 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인과 나팔과 대접이 연대순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왔습니다.

먼저 인이 일어나고, 나팔이 울리고, 대접이 이어진다. 요한계시록을 일종의 반복되는 순환으로 보는 데 의존하는 또 다른 중요한 관점과 일반적인 관점은 요약 관점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즉, 이 일곱 시리즈 중 세 가지, 즉 인과 나팔과 대접은 모두 같은 기간 동안 대략 동일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Greg Beale는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을 고수하며, 특히 나팔과 대접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중 많은 것들이 유사한 이유는 동일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6장의 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인과 나팔과 대접은 다른 사건, 심판, 기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순환적 성격 또는 요약의 일부입니다.

즉, Beale가 주장하는 것은 교회 역사 전체에 대한 세 가지 다른 관점일 뿐입니다. 1세기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모든 교회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여하시는 심판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이 연대순이 아니라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관점도 다릅니다. 이를 축구 경기, 야구 경기, 농구 경기, 축구 등의 경기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벤트를 볼 수 있지만, 즉시 재생되는 동안 카메라 팀이 속도를 늦추고 다른 사진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확대해서 보면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같은 연극의 동일한 사건이지만 관점이 다릅니다. 그것은 나팔이나 인, 나팔, 대접을 보는 이런 방식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또 다른 방법은 제가 선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8장, 9장, 16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진보적 관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1과 2를 결합한 것입니다. 세 가지 사이에는 약간의 중복이 있지만 시간적, 강도 면에서 진행도 있습니다.

즉, 아마도 6장의 인은 1세기부터 시작되는 교회 역사 전체를 특징짓는 사건을 상징할 것입니다. 나는 잠시 후 6장과 인을 살펴보면서 그 점을 논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이미 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인봉이 일어나고 있으며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팔은 인과 어느 정도 겹치는 사건을 묘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가까운 관점에서 보면 끝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더 강렬하고 조금 더 가까운 사건을 묘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장에 나오는 대접들은 주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끝날 때까지 훨씬 더 강렬하고 더 가까운 관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되며, 이는 심판의 날까지 쏟아질 심판을 특징으로 합니다. 주님 그리고 끝까지.

따라서 그렇게 이해하면 시간과 판단에 있어서는 약간의 진행이나 중복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강화와 진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인봉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는 후퇴하지만, 좀 더 가까이, 더 강렬한 관점에서 끝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다가 다시 한 번 후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더욱 강렬한 최후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지막에 완성하시기 직전에 쏟아 붓는 최후의 심판을 바라본다. 이것을 제안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은 나팔이나 인, 나팔, 대접을 읽을 때 첫 번째 항목이며, 그것들 모두가 당신을 끝까지 데려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인인 6번은 우리가 말했듯이,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보면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을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까지 인도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진노와 어린양의 진노. 그러므로 당신은 이미 마지막에 와 있으며, 8장과 9장의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는데, 그것은 당신이 끝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마침내 도래했고, 16장에서도 분명히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즉, 세 시리즈 모두 결말을 가져오지만, 각 시리즈는 더 강렬하고 가까운 관점에서, 역사의 완성,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인 종말에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되는 분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인봉은 인류의 4분의 1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나팔은 결국 땅의 3분의 1과 인류의 3분의 1, 즉 조금 더 많은 수의 해를 입게 됩니다.

16장에 나오는 대접들을 보면 그들의 판단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시간적으로나 강도적으로도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4분의 1과 1/3은 엄격한 수학적 정확성을 가지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분수는 강도를 제시하지만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인구의 규모를 합산하여 정확히 그 중 4분의 1을 상상하고 나팔 소리에서 3분의 1보다 남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요점이 아니다. 4분의 1과 3분의 1은 강렬함과 한계를 암시합니다.

그러나 제한이 줄어들어 그릇 판단에는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과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쏟아집니다. 이것에 대해 말해야 할 또 다른 항목은 7이라는 숫자는 아마도 우리가 이것을 그 순서대로 일어나는 7개의 문자적인 심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또 일곱은 온전함과 온전함의 수니 곧 인과 나팔 과 대접에 표현된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심판이니라. 따라서 일곱은 반드시 일곱 가지의 순차적 판단이 아니라 일곱 가지가 전형적인 상징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을 다시 한번 암시합니다.

그러면 6장에 나오는 모든 인은 마지막 심판 때를 준비하고 일종의 서곡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일종의 경고 신호, 일종의 기대, 아직 오지 않은 최종 심판에 대한 경고일 뿐입니다.

우리는 19장과 20장에서 이에 대해 읽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이것이 10회기, 요한계시록 5장과 6장, 어린 양과 두루마리의 인의 서론입니다.